

## 조선시대 지방 단유(壇壝)건축 신실(神室)의 유형과 변화

A Study on the Types and Changes of Relationship  
between Local Altar Architectures and Sinsil in Joseon Dynasty

신 혜 원\*

Sin, Hey-Won

(清華大學 建築學院 博士後)

## Abstract

Altar architecture is a kind of sacrificial building, mainly formed in altar. Central architecture of Altar architecture is relatively simple. However, various attached building are necessary for worship. Among them, Sinsil which is a place to seal a God's tablet, is very important.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attempted to define the local sacrificial system and make it customary as a way to strengthen the centralization based on Confucianism. Nonetheless, the altar architecture of the province without detailed regulations, were managed and underwent repairs accord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state and local circumstances.

Sinsil,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altar architecture, best reflects this situation.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situation of the altar architecture of the province in the Joseon Dynasty by analyzing the Sinsil through various document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divided into six types.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there are temporal relation between these six types.

주제어 : 지방 단유건축, 신실, 사직단, 여단, 성황

Keywords : Altar architecture in province, Sinsil, Sajikdan Altar, Yeodan, Seonghwang

## 1. 서론

고려 말 신진 사대부를 사상적 지지 기반으로 개국한 조선은 조선초기 유교적 예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에 대한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경향과 맞물려 비단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각 지방의 향교 건립과 지방 제사시설의 조성이었다. 이에 따라 성종 12년(1481)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이미 모든 지방 정부에 향교와 단유 제사시설인 사직단과 여단, 성황 제소(祭所)<sup>1)</sup>가 기록되었다.

\* Corresponding Author : choha337@naver.com

1) 성황 제사의 경우 지방에 제소를 조성하는 과정이 사직단, 여단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고려 말 성행했던 성황 제사 때문이다. 고려 말 성황 제사는 광범위하게 행해졌는데, 대부분 제사 대상인塑像을 제작하여 사묘에 두고 행해졌다. 그러나 조선시대 정부에서 지

비록 조선초기 이러한 지방 제사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지만, 그 건축 형제(刑制)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본래 지방 주군현의 지방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홍무예제』는 고려의 고제(古制), 당송의 고례(古禮)와 함께 조선 중앙 정부의 제사시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중앙 정부와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 지방의 경우, 자세한 기록이 없이 중앙의 시설 설명에 간단하게 덧붙여 있는 정도이다.<sup>2)</sup>

제사건축에 속하는 단유건축은 제사 행례가 이루어

방으로 보급하려는 성황 제사는 『홍무예제』를 기반으로, 신위를 제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그 제사는 여제를 거행하기 전 신위를 옮겨가기 위해 행하는 발고제였다. 따라서 아직 고려시대의 성황 제사의 전통이 남아 있던 조선전기 문헌에는 성황 제소가 성황단이 아니라 성황사로 기록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단와 사를 아울러 성황 제소라고 하였다. 기존의 성황 제사는 정부의 整治 노력에 따라 존폐를 반복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성황사와 성황단(혹 발고단으로 명칭하기도 함)이 병존하기도 하였다.

2) 조선초기 『국조오례의』, 조선후기 『춘관통고』 등.

## 8 논문

지는 중심 공간이 단(壇)과 이를 둘러싼 낮은 담장인 유(壘)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 유형이다. 읍지와 같은 문헌에서는 주로 단묘(壇廟) 항목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나, 항목 이름이 사묘(祀廟), 단사(壇祠), 묘사(廟祠) 등인 경우도 적지 않다. 직접적으로 단유라는 항목 이름을 사용한 문헌도 있다. 『세종오례의』의 「길례」·「서례」에도 단유 항목이 있는데, 도읍 한양의 여러 단유건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 가운데, 단묘, 사묘, 묘사 등은 단유를 포함하여 충렬사, 향현사(鄉賢祠) 등 사우 형식의 제사건축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항목 이름이 단사 또는 단유인 경우는 단유 형식의 건축만을 기술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의 경우, 사직단과 여단, 성황단이 정부의 주도하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 중 성황단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오던 성황 제사를 지내던 풍속 때문에 성황사라고 기술되기도 하였다.<sup>3)</sup> 그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에서 이 세 건축은 공통된다. 이 외에 단유건축으로는 지방에 따라 간혹 산천단이나 기우단이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 단유건축과 신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각 지방에 공통적으로 설치된 사직단, 여단, 성황 제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심플한 것이 위계를 가장 잘 나타낸다. 그런 면에서 단유건축은 위계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축 형식이다. 이러한 위계는 각 왕조의 예서나 정사(正史)를 통해 공식적이고 연역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명사(明史)』에는 태사직과 제사직(帝社稷), 왕국사직, 부주현 사직이 각각 규모를 달리하여 위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 규정은 여러 원인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방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더군다나 조선시대 지방 단유건축에 대해서는 예서에 따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역적 파악 자체가 힘들다. 위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지방 단유건축의 실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조선시대 지방 단유건축을, 여러 지방의 예들을 분석하여 한 부분이나마 귀납적으로 그 형제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실과 세 단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 이러한 제사시설들이 조선초기 전국적으로 설치

되었다고는 하나, 『조선왕조실록』에서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면 주로 간단한 형태로 조성되었을 뿐, 그 규모조차 통일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속 건물 또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sup>4)</sup> 게다가 현재 지방에 남아 있는 단유건축의 실례는 몇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 문헌을 통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건축 유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단유건축에서, 신위를 봉안하는 신실(神室)은 가장 중요한 부속 건물이다. 따라서 그나마 여러 문헌 속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문헌 내용에 따르면 지방 단유건축의 신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조성 시기에 일관된 규정이 없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여러 지방 문헌에 기록된 관련 내용을 수집하여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신실을 유형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로 어떠한 시간적 전후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논문에 참고한 문헌 자료는 주로 영인된 지방 읍지들과 『여지도서』, 『1872년 지방지도』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 단유건축과 같이 건축 실례가 매우 부족한 경우, 1차 자료를 통한 관련 문헌의 정리와 분석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량의 문헌을 통한 귀납적 연구는 이후 지방 단유건축, 나아가 제사건축의 연구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조선시대 제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와 지방 단유건축 및 그와 관련된 제사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조선초기 제사 제도의 성립 과정과 내용 및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연구로는 김해영의 『조선초기 제사 전례 연구』, 한형주 등의 『조선의 국가 제사』, 한형주의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이육의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등이 있다.<sup>5)</sup> 특히 김해영의 저서는 조선초기 제사 전례의 성립에서 『홍무예제』의 수용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육의 저서는 여제(厲祭)를 상세히 다루고 있어 조선후기 여단과 성황 제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저서들은 대부분 중앙의 제사 제도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지방 제사 제도를

4) 『世宗實錄』, 49卷, 12年 8月 6日: “禮曹據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所申條件, 磨鍊以啓: …各官壇壝之制, 長廣高低不一, 又無垣牆, 故人畜踏毀污穢, …神位版, 或用松栗及雜木製造, 長廣厚薄不同, 或用紙糊, 又以位版, 藏之寺院, 未便。”

5) 김해영, 『조선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 한형주 외,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이육,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3) 조선시대 성황사와 성황단의 관계는 ‘신혜원, 『조선시대 성황 제소의 혼란한 양상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44집, 2017, 125~15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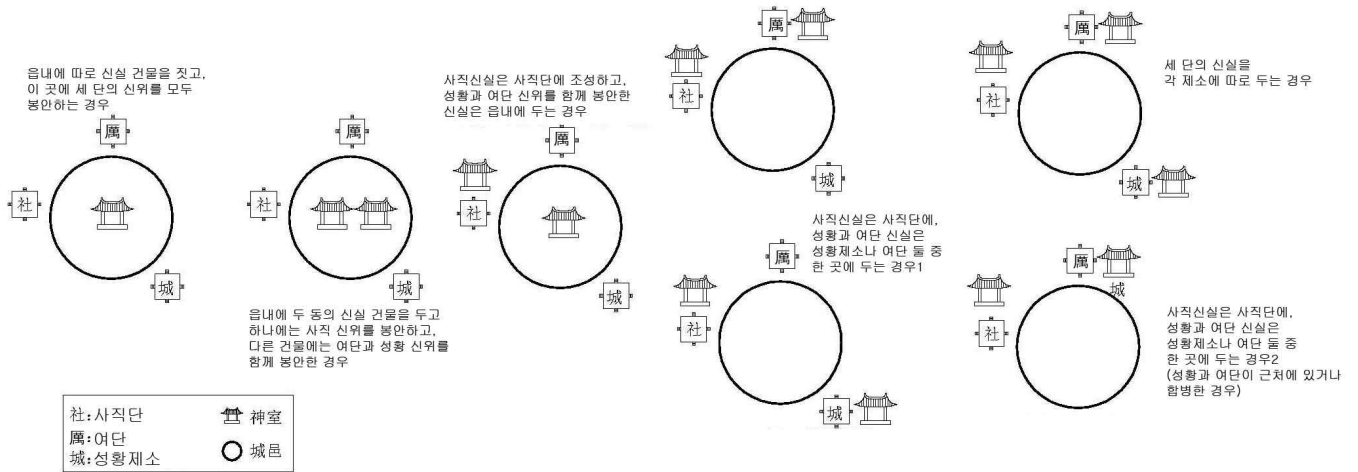


그림 1. 세 단과 신실의 관계 모식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 단유건축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건축사적 성과와 민속학·역사학적 연구가 있다. 건축사적 성과로는 현존하는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sup>6)</sup>를 들 수 있으며, 이외 제 문헌과 도상 자료를 이용한 건축 형제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7)</sup>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지방 단유건축 중 사직단만이 연구 대상이다. 이는 사직제가 여단과 성황에 비해 중요시 여겨져 그 단유의 조성이 격식을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여단과 성황에 대한 건축사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는 여단의 경우 지방에 남아 있는 사례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고, 성황의 경우 사직단이나 여단과 다르게 중앙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형태로 지방에서 나타나 이를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성황 제소에 관해서는 민속학·역사학 영역에서 연구 성과가 풍부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각 지방의 성황제나 성황당의 복합적 성격의 제례 의식을 민속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건축학적 접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최종석의 몇 논문은 조선시대 성황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고려에서 내려오던 전통적 성황제와 조선 초 예제 정립 시 수용했던 명 예제의 관계를 심도 깊게 다루었고, 영남 지역의 폐사설단(廢祠設壇) 경향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통해 논증하였다.<sup>8)</sup> 이외, 필자의

「조선시대 성황 제소(祭所)의 혼란한 양상에 관한 연구」<sup>9)</sup>는 지방의 단유건축 중 사직단, 여단과는 다른 양상으로 형성된 성황제소에 대해 읍지와 지방지도를 근거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2. 신실과 세 단유의 관계 유형

여러 지방의 관련 문헌을 살펴본 결과, 지방 단유건축의 신실은 그 위치와 봉안하는 위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타를 포함하여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림 1>

- 1) 읍내에 따로 신실 건물을 짓고, 이곳에 세 단의 신위를 모두 봉안하는 경우이다. 신실 위치에 따라 객사 근처 신실과 관아 근처 신실로 나눌 수 있다.
- 2) 읍내에 두 동의 신실 건물을 두고 하나에는 사직 신위를 봉안하고, 다른 건물에는 여단과 성황 신위를 함께 봉안한 경우이다.
- 3) 사직 신실은 사직단에 조성하고, 성황과 여단 신위를 함께 봉안한 신실은 읍내에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 성내 성황사가 있는 경우 따로 신실을 두지 않고 성내 성황사가 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 4) 사직 신실은 사직단에, 성황과 여단 신실은 성황 제소

6) 영남문화재단연구원, 『대구 노변동 사직단유적』, 2005; 삼강문화재단연구원, 『창녕 사직단: 시굴조사 보고』, 2011; 관동대학교박물관, 『삼척원당동유적(고분·사직단지)발굴조사보고서』, 1997

7) 장지연, 「조선시기 주현 사직단 설치의 의미와 그 실제」, 한국문화, 56호, 2011, 3~46쪽; 김미영, 「지방 사직단에 대한 연구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20집, 2006.12, 5~44쪽; 유훈조, 「조선시대 주현 사직단의 시설 및 부속 건축물 설치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20호, 2012.12, 221~263쪽

8) 최종석,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 52호, 2010.3, 5~49쪽; 최종석,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43호, 2008.12, 145~200쪽; 최종석, 「여말선초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개편」, 역사와 현실, 72호, 2009.6, 207~251쪽; 최종석, 「조선 초기 성황사의 입지와 치소」, 동방학지, 131집, 2005, 37~88쪽; 최종석, 「조선전기 淫祀의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격: 중화 보편 수용의 일양상」, 역사학보, 204호, 2009.12, 189~236쪽

9) 신혜원, 앞의 글, 2017, 125~150쪽

10 논문

나 여단 둘 중 한 곳에 두는 경우이다. 성황과 여단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거나 합병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5) 세 단의 신실을 그 해당 제소에 따로 두는 경우이다.
- 6) 기타 예로 신실이 향교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예들의 문헌 기록을 정리하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1. 읍내에 따로 신실 건물을 짓고, 이곳에 세 단의 신위를 모두 봉안하는 경우

이 경우, 문헌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신위를 봉안한 장소를 표현하고 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명칭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명칭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신실의 기능을 추측할 수 있다.

신위 봉안소의 명칭: 사직사(社稷祠), 사직묘(社稷廟), 성황사직묘(城隍社稷廟), 사려묘(社厲廟), 사직성황신사(社厲城隍神祠), 주신사(主神祠), 신사당(神祠堂), 신실(神室), 신각(神閣), 위패각(位牌閣), 위판고(位板庫), 전사고(典祀庫), 봉안당(奉安堂) 등

이 유형의 경우, 대부분의 신실은 객사 또는 관아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문헌 내용으로 알 수 있다. 객사나 관아 부근에 신실을 둔 가장 큰 이유는 관리의 편리성일 것이다. 사실 객사 부근은 읍내에서 신실을 조성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객사의 기능이 전패(殿牌)를 봉안하고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던 예제성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읍내의 다른 장소보다 엄숙할 뿐만 아니라, 군기고(軍器庫)나 화약고(火藥庫)와 같이 지방의 중요한 시설 또한 가까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객사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 신실은 주로 객사의 북쪽에 자리 잡은 예가 많으나, 동쪽과 서쪽 또한 없지 않다. 경상도 영산과 충청도 음성, 천안은 비교적 특수한 경우로, 신실이 객사 내에 위치하였다. 신실의 규모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모두 1칸에서 3칸 사이이다. <표 1>

그런데 위의 표 내용 가운데, 경기도 장단이나 경상도 창녕, 충청도 목천과 부여의 내용에, 후에 신실을 폐했거나 위패를 이봉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창녕의 경우 사직사우를 따로 지었고, 목천의 경우는 위패를 각 제소에 이봉했으며, 단천 또한 여단에 환봉(還奉)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신실의 신위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각 제소에 봉안하려고 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표 1. 신실이 객사 부근에 위치하는 예

地名	出 處	內 容
京畿 長湍	長湍邑誌 <sup>10)</sup>	神室: 社壇、城隍祠、厲壇位牌奉安所。 * 읍지 지도 중에 신실이 객사 북쪽에 표기되어 있으나 <그림 2>, 이후 읍지 내용에는 신실에 관한 내용이 없다.
慶尙 軍威	慶尙道邑誌 等 <sup>11)</sup>	社稷祠: 在客舍北, 奉安位板。
慶尙 靈山	輿地圖書	(新增)神室: 在客舍西北隅。
慶尙 蔚山	蔚山邑誌	主神祠: 在鶴城館 <sup>12)</sup> 後。
慶尙 昌寧	輿地圖書 等	(新增)奉安堂: 在客舍東。社稷、城隍、厲祭位板並奉安。 * 읍지에 따르면, 1796년경 사직사우(社稷祠宇)를 건설했다.
慶尙 豐基	慶尙道邑誌 等	社稷廟: 在客舍西。
忠清 木川	大麓志 等 <sup>13)</sup>	(公廡)位板庫: 1間。在客舍北。藏社稷、城隍神位及厲祭時雜神15位牌, 凡18位。【續】今則位牌移奉於各所庫, 因廢。
忠清 扶餘	扶餘志 <sup>14)</sup>	公廡·神祠堂: 2間, 神位十二。在客舍北, 舊有今廢。
忠清 陰城	陰城郡邑誌	(新增祠廟)社稷祠: 在客舍東垣內。縣社稷位牌、城隍、無祀神位牌, 並奉安。(1720경 <sup>15)</sup> )
忠清 天安	寧城志 等 <sup>16)</sup>	典祀庫: 在軍器庫西, 今無。 * 軍器庫: 在客舍中大廳西, 坐起廳2間, 庫舍3間, 上直房。今無。<그림 3>
咸鏡 端川	輿地圖書	神閣: 城內衙舍東, 社稷、城隍、厲神位板奉安於此。
	關北志 <sup>17)</sup> 等	神閣: 在客館西, 社稷、城隍位板奉安於此。中年 <sup>18)</sup> 撤閣還奉安于厲壇。

10) 『長湍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京畿道邑誌, 5卷), 奎章閣藏(奎17367), 19世紀 전반기. 읍지 지도를 신지 않은 이외에 내용은 『京畿志』(한국학중앙연구원, 邑誌, 10卷), 奎章閣藏(奎12178), 1842~1843'과 일치한다.

11) 『慶尙道邑誌』(한국학중앙연구원, 邑誌, 1卷), 奎章閣藏(奎666), 1832  
12) 울산의 객사이다.

13) 趙國仁, 『大麓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14卷), 奎章閣藏(奎3259). 1779년(정조 3)~1817년(순조 17) 사이에 쓰였다. 정문(正文)은 정조 시기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 【續】 부분은 순조 시기에 보충하여 서술한 것이다. 【續】 부분은 『大麓志』에만 있다.

14) 『扶餘志』(서울대학교 규장각, 忠清道邑誌, 3卷), 奎章閣藏(奎15705), 1929

15) 같은 책에 社稷祠는李世瑾(1664~1735)이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세근은 1720년경 충청도 감사를 역임했다. 『陰城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忠清道邑誌, 3卷), 奎章閣藏(奎10762), 1896

16) 『寧城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忠清道邑誌, 4卷), 奎章閣藏(經古905. 132-Y63y), 1852; 『寧城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14卷), 奎章閣藏(古4790-59). 『寧城志』는 1852년(철종 3) 완성되었는데, 1863년(철종 14) 보완되어 간행되었다.

17) 『端川府』, 『關北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1卷), 國立中央圖書館藏(古2790-7), 1859; 『關北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그림 2. 경기 장단



그림 3. 충청 천안

함경도 경흥의 신실은 관아 부근에 위치하는 예이다.<sup>19)</sup> 『여지도서』에 따르면, 경흥의 성황사직묘는 관아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개경은 조선 초 수도로 기능했던 특수한 경우로 도시시설이 다른 지방과 달랐는데, 신실은 분봉상시(分奉常寺) 내에 위치하였다. 『여지도서』에는 그 구체적인 형태까지 기록되어 있다.<sup>20)</sup>

이상의 경우 이외에 성내에 있지만 그 위치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예도 있다.<표 2>

표 2. 기타 성내 혹은 읍내 신실의 예

地名	出處	內 容
全羅 臨陂	輿地圖書等	位牌閣: 在城內(東邊)
忠淸 結城	忠淸道邑誌等	社厲城隍神祠: 在城內西
忠淸 連山	輿地圖書	(公廨)位版庫, 3間
忠淸 靑山	輿地圖書	(倉庫)位版庫, 1間
咸鏡 吉州	輿地圖書等	社厲廟: 在城內(東)

2-2. 읍내에 두 동의 신실 건물을 두고 하나에는 사직 신위를 봉안하고, 다른 건물에는 여단과 성황 신위를 함께 봉안한 경우

이 경우 두 동의 신실 건물은 대부분 가까이 위치하였다. 경기도 고양과 전라도 익산은 두 동의 건물이 모두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사나 관아 근처에 위치하였다. 규모는 서산 읍지에서만 찾을 수 있었는데, 각 1칸이다.<표 3>

이상에서 살펴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읍내 또는 성내에 신실을 조성한 경우이다. 위의 경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다른 지역보다 충청도 지역의 예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私撰邑誌, 43卷,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藏2-4215), 1868

18) 정조~현종 시기로 추정.

19) 『輿地圖書』; “城隍社稷廟: 在城內衙舍北。”

20) “神室於(分奉常寺)正廳之東, 塗以丹雘, 繚以周牆, 以奉社稷、城隍位板。”

표 3. 읍내 신실, 사직과 성황여단 신실을 분리한 예

地名	出處	內 容
京畿 高陽	高陽郡志 <sup>21)</sup>	社稷壇、城隍壇位板奉安室俱在衙后。
江原 高城	關東志 等	(社稷)神室在城內南山西麓。(城隍堂)神室在社稷神室之下(前)。无祠鬼神位并藏于城隍神室。
全羅 益山	金馬志 <sup>22)</sup>	社稷祠: 在客館北, 奉安位板, 1755年重修。(社稷壇在郡西2里) 城隍祠: 在社稷祠旁, 奉安位板, 兼安无祀鬼神位板。1755年重修。
忠淸 瑞山	湖西邑誌 等	社稷位牌奉安閣, 1間, 城隍、厲鬼位牌奉安閣, 1間, 在城內。

2-3. 사직 신실은 사직단에 조성하고, 성황과 여단 신위를 함께 봉안한 신실은 읍내에 두는 경우

문헌에 나타난 이 유형의 사직 신실의 규모는 모두 1칸이었다. 사직단에 조성된 신실의 위치는 두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경상도 함안의 경우 사직단의 서남쪽에, 전라도 무안의 경우는 단 아래, 즉 단 앞이다. 전라도 만경의 경우는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각(厲閣)이 성내 관아 뒤편에 위치하고 성황단과 여제단이 성 내외에 따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성황과 여단 신위를 함께 봉안한 읍내 신실은 앞의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객사 부근에 위치하였고, 그 규모는 대부분 1칸이다.<표 4>

표 4. 사직 신실은 사직단에, 성황·여단을 함께 봉안한 신실은 읍내에 있는 예

地名	出處	內 容
京畿 高陽城	京畿志	(社稷壇)在縣西2里。神室, 柱木腐傷, 自上壓下, 四壁頽落, 向東而傾。故向壇所前進7步新建。(1785年改建)
		(厲壇)神室, 1785年改建于客舍。今在縣北3里
京畿 積城	京畿邑誌 等	(社稷壇)在縣西1里。神室1間, 丁未(1787年) <sup>23)</sup> 秋改建。
		(城隍壇)在縣南2里。城隍神室: 在客舍北。1間。己巳 <sup>24)</sup> (1809年)春新建。
慶尙 咸安	咸州志 <sup>25)</sup>	(社稷壇)神室1間, 在壇之西南。
	輿地圖書	神祠: 在客館西, 奉安城隍以下各神位板
全羅 萬頃	1872年 地圖	<그림 4> 성내 여각

21) 『高陽郡志』(서울대학교 규장각, 京畿道邑誌, 2卷), 奎章閣藏(奎12706), 1755

22) 南泰普, 『金馬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24卷), 奎章閣藏(奎17417), 1756

23) 1787년으로 단정하는 근거로는, 첫째, 같은 책 ‘學校’ 부분에 ‘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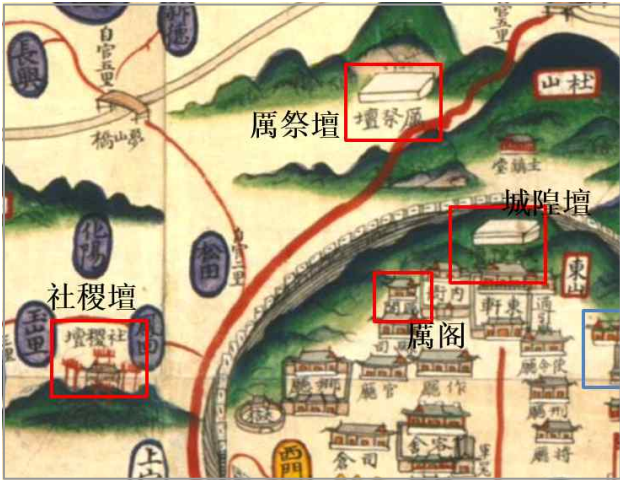


그림 4. 전라 만경, 『1872년 지방지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성내에 성황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강원도 삼척의 읍지에 따르면, 원래 갈야산 뒤에 있었던 성황사가 성안으로 이설된 후 삼척부는 성황사 내에 있던 상을 없애고 여러 제사의 위패를 봉안하는 곳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명칭이 여전히 성황사이고, 당시 지방 사직의 위상이 여단이나 성황보다 높았다는 사실로 볼 때, 사직 위패는 따로 봉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척의 예를 토대로 다른 성내 성황사 또는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지방의 기록은 자세하지 않아 단정 짓기는 어렵다.

표 5. 기타 성황사가 읍내에 있는 예

地名	出處	內容
江原 三陟	陟州志 <sup>26)</sup> 等	城隍祠: 初在葛夜山后, 移祠於城中。孝宗五年(1654年), 府使李之龍黜其像。今其祠藏諸祠祀板。
江原 杆城	輿地圖書	城隍祠: 在客舍後
全羅 務安	務安縣邑誌 等 <sup>27)</sup>	社稷堂: 在社稷壇下(前); 城隍堂: 在邑城內東。
全羅 茂長	茂長縣邑誌 等 <sup>28)</sup>	城隍祠: 合縣後更設於城內
忠清 沔川	1872年 地圖	城內城隍祠
忠清 嶺岑	輿地圖書 等	城隍祠: 在官門前司倉後
	湖西邑誌	社稷壇: 在縣南1里許, 1間半; 城隍堂: 在縣北1里許, 1間

의 묘호가 등장하기 때문으로, 즉 단묘 부분의 기년은 정조 이후가 마땅하다. 두 번째로는 이 책이 19세기 전반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丁未는 1787년(정조 12)을 가리키며, 乙巳는 1785년을 가리킨다.

24) 1809년으로 추정된다. 혹은 '乙巳'(1785년)의 오키일 수도 있다.  
 25) 鄭述, 『咸州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23卷), 奎章閣藏(奎10985). 『咸州誌』는 1656년(효종 2) 편찬되어, 1717년(숙종 43) 간행되었다가, 1888년(고종 25) 활자본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26) 『關東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9卷), 奎章閣藏(奎12172), 1871;

<표 5>는 삼척을 비롯하여 성황사가 성내에 위치한 기록들인데, 강원도 간성의 경우 객사 뒤에 위치하였고, 충청도 진천은 관문 앞 사창(司倉) 뒤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2-4. 사직 신실은 사직단에, 성황과 여단 신실은 성황 제소나 여단 둘 중 한 곳에 두는 경우

이 경우는 앞의 유형과 같이 신실이 사직 신실과 성황 여단 신실로 나뉜 경우로, 차이점은 신실이 읍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제소에 있는 것이다. 사직 위판은 사직단에 신실을 지어 봉안하고, 성황과 여단 신위는 성황 제소나 여단 두 곳 중의 한 곳에 합쳐 봉안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 보급하려던 관계 성황 제사가 여제의 3일 전에 성황 신위를 모시고 진행하는 밭고제였기 때문에, 조선후기에는 성황 제소와 여단이 매우 밀접한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이 두 제소는 근처에 위치하거나 합병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났다. 이러한 경우도 이 유형에 대부분 포함된다.

이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헌 내용 가운데 세 단유 중 두 제소만 건물 관련 기록이 전하는 예들을 찾았다. <표 6> 이러한 기록이 반드시 기록된 두 곳에만 신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세 단유 모두 사묘 형태의 부속 건물이 있는 경우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이다. 특히 사묘 형태의 성황사가 이어 내려온 경우, 신실 관련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사시설로서 함께 기록된 것으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건축 형태 또한 그러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 6>과 같이 정리하는 것도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지방 제사 가운데 사직의 위상은 성황과 여단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패를 봉안하는 것 또한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그렇기

許穆, 『陟州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5卷), 國史編撰委員會藏(國史B-6BBA), 1662. 『陟州誌』는 1662년(현종 3)에 완성된 읍지이다. 지도와 序, 말미의 賦, 이 외의 내용은 『陟州誌』(서울대학교 규장각, 江原道邑誌, 3卷, 1997), 奎章閣藏(古4790-13) 및 『陟州誌』, 奎章閣藏(想白古915.15-H41c)과 일치한다.

27) 『務安縣邑誌』, 奎章閣藏(奎17426), 正祖末期到純祖初期; 『務安縣邑誌』, 『湖南邑誌』, 奎章閣藏(奎12181), 1895; 『務安縣邑誌』, 『湖南邑誌』, 奎章閣藏(奎12175), 1871. 세 읍지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 『全羅道邑誌』, 9卷'에 수록되어 있다.

28) 『茂長縣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25卷), 藏書閣藏(2-4237); 『茂長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全羅道邑誌, 9卷), 奎章閣藏(奎10772). 藏書閣藏 『茂長縣邑誌』의 초본은 1636년(인조 14)경 편찬되었고, 1741년(영조 17) 증보되었으며, 1856년(철종 7) 내용을 보충하여 재간행하였다.

29) 『英祖實錄』, 6年 12月 20日



때문에 사직 신실에 관한 기록이 없더라도 만약 성황이나 여단 신실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 사직 신실이 이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사직 신실에 대한 내용 없이 다른 단유의 신실만을 기록한 예는 아주 드물다. 참고한 자료를 통틀어 평안도 삼화와 성천 그리고 함경 단천과 명천, 네 경우뿐이었다.

표 6. 세 단유건축 중 사직단 포함 두 곳에만 신실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사직 신실은 사직단에 성황연단 신실은 성황제소나 여단소에 있을 것으로 추정)

地方	出 處	壇	內 容
京畿富平	京畿邑誌 <sup>30)</sup>	社稷壇	神室, 1785年, 移建於壇後。
		城隍壇	在府南2里, 神室在府北3里。(厲壇在府北3里)
京畿坡州	坡州郡邑誌 <sup>31)</sup>	社稷壇	神室1間半。
		厲壇	神室2間。
慶尙大邱	慶尙道邑誌 等	社稷壇	神室, 1792年創建。
		厲祭壇	神室, 1792年創建。
江原金化	金化縣邑誌 <sup>32)</sup> 等	社稷壇	祠宇6間, 1792年建。
		厲壇	祠宇6間, 1792年建。
江原寧越	關東志 等 <sup>33)</sup>	社稷壇	1792年, 建屋4間。
		厲祭壇	1792年, 建屋4間。
全羅求禮	鳳城志 <sup>34)</sup>	社稷壇	神宇3間, 齋所1間。
		城隍祠	神宇1間, 齋所3間。(厲壇: 在城隍祠北)
全羅靈光	赤城志 <sup>35)</sup>	社稷壇	5間, 壇後, 1663年修改。
		城隍祠	1間。(厲祭壇: 在城隍旁)
全羅沃溝	靈光續修輿地勝覽 <sup>36)</sup>	社稷壇	2間。在西面尺洞西麓。
		城隍壇 厲壇	2間。在主巖。
忠清牙州	忠清道邑誌	社稷壇	1786年, 神室改建, 壇下。
		城隍壇	神室, 6間, 畫幀粘壁, 廊廡6間。
忠清全義	湖西邑誌 <sup>37)</sup>	社稷壇	神室2間, 1792年新修改。
		厲壇	神室2間, 奉城隍神及諸無祀神。(城隍祠原在社稷壇西, 3間而廢)
黃海新溪	新溪縣邑誌 <sup>38)</sup>	社稷壇	瓦家2間, 在縣北。
		城隍祠	瓦家3間, 在縣西。
黃海甕津	甕津府邑誌 <sup>39)</sup>	社稷壇	築壇建屋, 環牆而立四方紅箭門。
		厲壇	立屋妥無祀神十五位。
平安三登	關西邑誌 (1871)	社稷壇	奉安神室及典祀廳, 1784年營改建。
		厲壇	典祀廳3間, 齋室2間。
平安成川	成川續志 <sup>40)</sup>	城隍祠	舊在紇骨城(3間), 建于厲壇北。神室1間。
平安平壤	平壤志 <sup>41)</sup> 平壤志 <sup>42)</sup>	社稷壇	壇前有位板堂。
		城隍祠	在府西4里。廳屋3間, 前楹3間, 東西翼廊各3間, 大門1間。

咸鏡吉州	吉州郡邑誌 <sup>43)</sup>	社稷壇	1間, 1704年移建。
		城隍壇 厲壇	並1間, 同時移建。
咸鏡端川	關東志 <sup>44)</sup>	神閣	在客館西, 社稷、城隍位板奉安於此。中年(推定爲正祖~憲宗)撤閣還奉安于厲壇。
咸鏡鏡城	關北志 等 <sup>45)</sup>	社稷壇	有位室3間, 齋室3間。
		厲壇	有位室3間, 齋室3間。
咸鏡永興	關北邑誌 等 <sup>46)</sup>	社稷壇	牆內有宇。平時則位板安於宇內, 祭時則出安於壇上。
		厲壇	牆內有宇。厲神位板, 平時安於宇內, 行祀則出安於壇上。(城隍祠: 舊在聖曆山, 今廢, 行祀于厲壇)
咸鏡穩城	續關北志增補 <sup>47)</sup>	社稷壇	程位室2間, 奉安社神、稷神位牌。
		厲壇	位室2間, 奉安城隍神位牌及無祀鬼神位牌。 (城隍位牌奉安于厲壇神堂。發告祭時奉來于壇上行祭)

30) 『京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0卷), 奎章閣藏(奎12177), 1871

31) 『坡州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京畿道邑誌, 5卷), 奎章閣藏(奎10712), 1899

32) 『關東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9卷), 奎章閣藏(奎12172), 1871; 『金化縣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江原道邑誌, 3卷, 126쪽), 奎章閣藏(奎17524), 1823경

33) 『關東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8卷), 國立中央圖書館藏(國立古2780-1-5.1), 1829~1831; 『關東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9卷), 奎章閣藏(奎12172), 1871; 『寧越府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江原道邑誌, 4卷), 奎章閣藏(奎17517), 1792 직후

34) 『鳳城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28卷), 奎章閣藏(奎7912), 1800

35) 朴重浩·李海教, 『赤城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27卷), 奎章閣藏(奎4790-43), 1898

36) 姜永寬·宋斑基·辛克熙, 『靈光續修輿地勝覽』(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24卷), 奎章閣藏(915.142-G155Y). 1761년(영조 36) 처음 편찬되었고, 1871년(고종 8년) 보완하여 간행되었다.

37) 『湖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8卷), 1871; 『湖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9卷), 1895

38) 『新溪縣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1卷),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藏2-4340), 1894 이후; 『新溪郡邑誌』, 『黃海道各郡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4卷), 國立中央圖書館藏(古2760-1), 1899

39) 『甕津府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2卷), 奎章閣藏(想白915.17-ON3), 1879

40) 『成川續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52卷), 奎章閣藏(奎12399), 1842(헌종 8)경

41) 『平壤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7卷), 國立中央圖書館藏(古2772-4), 1905

42) 『平壤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5卷), 奎章閣藏(奎4885). 1~4책은 『平壤志』(1590, 선조 23)이고, 5~9책은 『續平壤志』(1727, 영조 3), 10책은 1855년(철종 6)에 증보된 것으로, 1915년에 간행되었다. 『續平壤志』에는 단묘 상관 내용이 없다.

43) 『吉州郡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9卷), 奎章閣藏(奎11003), 1899경

14 논문

표 7. 세 단의 신실을 각 제소에 따로 둔 경우

地名	出處	社稷壇	厲壇	城隍
京畿 麻田	麻田郡邑誌 <sup>48)</sup>	神室1間, 紅箭門1間	神室1間	神室1間
京畿 始興	輿地圖書	午坐子向, 1間蓋瓦	子坐午向, 1間	子坐午向, 1間
	始興郡邑誌 <sup>49)</sup>	1間, 壇, 午坐子向	1間, 壇, 子坐午向	
京畿 陽智	陽智縣邑誌 <sup>50)</sup>	神室1間, 四方紅箭門	神室1間, 四方紅箭門, 在社壇右邊	1間
江原 淮陽	淮陽邑誌 <sup>51)</sup>	廳屋2間, 四面築壇, 立紅門	廳屋1間, 四方立紅門	廳屋3(2)間
	淮陽邑續志 <sup>52)</sup>	壇所2間, 歇所1間	祭堂2間, 歇所1間	
全羅 古阜	古阜郡邑誌 <sup>53)</sup>	神室及齋舍, 新建	齋舍在壇南, 新建	壇在祠南, 新建
忠清 平澤	輿地圖書	堂1間, 在壇南	在社稷壇東, 堂1間, 在社壇下	3間, 在縣北主山
黃海 安嶽	安嶽郡邑誌 <sup>54)</sup>	2間	2間	6間
平安 江界	江界府邑誌 <sup>55)</sup>	堂1間, 壇4壇共15尺, 內牆周回各30尺, 外牆周回各40尺, 四面各有紅門. 奠祀廳2間	堂1, 壇1, 4面牆有紅門	堂1, 4面各有紅門
平安 江西	關西邑誌 等 <sup>56)</sup>	神室1間, 齋幃4間	神室1間	神室1間
平安 階川	關西邑誌 <sup>57)</sup>	位牌奉安室1間, 上直房3間	位牌奉安室1間, 上直房3間	位牌奉安室1間
平安 祥原	關西邑誌 <sup>58)</sup>	祠宇2間	祠宇2間	祠宇2間
平安 肅川	關西邑誌 等 <sup>59)</sup>	廳2間, 典祀廳3間	廳2間	廳2(7)間
平安 永柔	關西邑誌 等 <sup>60)</sup>	神室2間, 神門1間, 齋室3間, 狹門1間	神室2間, 齋室4間	神室2(1)間
平安 龍岡	龍岡邑誌 <sup>61)</sup>	環築石牆, 四面有紅箭門. 位板閣1間, 在西牆內. 壇直房3間	位牌閣: 1間, 壇直房3間. 壇坐地一日耕	1(3)間
平安 龍川	龍城志 <sup>62)</sup>	神宇2間, 齋室2間	祠宇2間	祠宇1間
平安 殷山	關西邑誌	廳屋2間	廳屋1間	廳屋1間
平安 義州	龍灣志 等 <sup>63)</sup>	方各1丈5尺, 高1尺5寸, 繞以垣, 東南西北有紅箭門. 神室1間, 在壇西牆內. 齋室3間, 宰廚2間連付在牆外西.	方各1丈, 高1尺, 繞以垣, 東南西北有紅箭門. 神室1間半, 在壇東牆內. 齋室3間, 宰廚2間, 連付在牆外南.	5架3間. 繞以垣, 有狹門, 正門.
平安 慈山	慈山郡邑誌 <sup>64)</sup>	典廳3間		
	關西邑誌(1871)		廳1間	廳2間
平安 慈城	關西邑誌(1871)	1間, 典祀廳2間, 紅門4	3間, 典祀廳2間	1間, 典祀廳2間
平安 昌城	關西邑誌 等 <sup>65)</sup>	壇壝1所, 神室1間	壇壝1所, 神室2間	神室1間, 大門1間

44) 『端川府』, 『關北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1卷), 國立中央圖書館藏(古2790-7), 1859

45) 『北關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3卷), 1872; 『關北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1卷), 國立中央圖書館藏(古2790-7), 1859; 『關北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3卷),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藏2-4215), 1868

46) 『北關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3卷), 1872; 『關北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3卷), 1894; 『永興府邑誌』, 『關北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2卷),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藏2-4215), 1868

47) 『續北關志增補』(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9卷), 藏書閣藏(2-4247), 1891

48) 『麻田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京畿道邑誌, 2卷), 奎章閣藏(古915.12-M289g), 1899

49) 『京畿道始興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京畿道邑誌, 2卷), 奎章閣藏(奎10711), 純祖間; 『京畿志』, 奎章閣藏(奎12178), 1842~1843之間; 『京畿邑誌』, 奎章閣藏(奎12177), 1871; 『畿甸邑誌』, 奎章閣藏(奎12182), 1894~1895. 『京畿志』, 『京畿邑誌』, 『畿甸邑誌』는 모두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0卷'에 실려 있다.

50) 『陽智縣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京畿道邑誌, 2卷), 奎章閣藏(奎17365), 1842경

51) 『淮陽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7卷), 精神文化研究院藏(藏2-4342); 『淮陽』, 『關東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江原道邑誌, 1卷), 奎章閣藏(奎12172); 『關東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9卷), 奎章閣藏(奎12172), 1871. 『淮陽邑誌』는 1792년(정조 16)에 편찬되었는데, 1826년(순조 26) 보완하여 續志를 편찬하였다. 1871년(고종 8), 1897년(고종 34) 先生案을 보완하였다.

52) 『淮陽邑誌』중의 續志.

53) 『古阜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全羅道邑誌, 1卷), 奎章閣藏(奎12175). 1852년 이전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으며, 『輿地圖書』와 일치한다.

54) 『安嶽郡邑誌』, 『黃海道各郡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4卷), 國立中央圖書館藏(古2760-1), 1899

55) 李麟徵, 『江溪府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53卷), 奎章閣藏(奎17506); 『江界府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54卷, 71쪽), 奎章閣藏(奎10948). 『江溪府邑誌』는 1695년(숙종 21) 처음 쓰였고, 순조 말기에 편찬되었다. 當甯은 순조를 가리킨다. 『江界府邑誌』는 1695년(숙종 21) 처음 편찬되었고, 1839년(헌종 5)에 증보되었다.

56) 『關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4~15卷), 奎章閣藏(奎12168), 1871; 『關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6~17卷), 奎章閣藏(奎12169), 1895; 『江西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8卷, 16쪽), 奎章閣藏(古4790-6), 1829; 『江西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8卷, 117쪽), 奎章閣藏(奎12300), 1895



<표 6>의 지방 중 평안도 성천과 함경도 단천을 포함하여 경기도 부평, 전라도 구례·무주·영광·옥구, 그리고 충청도 전의와 함경도 길주·온성·용흥은 성황과 여단이 합병되었거나 근처에 위치하여 신실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형의 신실 규모는 비교적 큰데, 3칸 규모가 비교적 많았다. 크게는 6칸 건물도 있었으며, 신실 이외에 재실을 갖춘 곳도 적지 않다. 재실의 규모는 대부분 3칸인데, 2칸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으며, 1칸의 경우는 전라도 구례뿐이다.

2-5. 세 단의 신실을 각 제소에 따로 두는 경우

이 유형은 앞선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발전한 형태일 것이다. <표 7>은 문헌에서 이러한 형태를 기록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지방의 세 단유 표현 형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 지방에서 세 단유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세 단유의 형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즉 경기도 양지와 평안도 용강의 경우 사직단과 여단은 모두 신실이나 위판각을 따로 기록하였는데, 성황은 건물 규모만 표기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 평안도 강계·의주·창성은 좀 더 명확하게 사직과 여단은 단으로 표기하였고, 성황은 건물의 규모로 표기하였다.

이와 달리 전라도 고부의 성황 기록에서는 단이 사(祠)

의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단과 사(祠)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문헌 내용은 세 단유가 동일한 표현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 건축 형태 또한 비슷하게 ‘단 + 신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표 7>에서 보이듯이 평안도의 예가 다른 지방에 비해 뚜렷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평안도 단유건축의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 유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세 단유 모두 단과 신실을 갖추고 있다.
- 2) 사직과 여단은 단과 신실을 갖추고 있으나, 성황은 단과 사묘로 구성된 경우이다. 여기서 성황 사묘는 신실과는 달리 제사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사직과 여단은 단과 신실을 갖추고 있으나, 성황은 사묘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신실 규모는 대부분 1칸에서 2칸 사이이며, 3칸인 경우도 보인다. 즉 명확히 앞 유형의 신실 규모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의 문헌 기록에는 재사(齋舍), 직방(直房), 전사청(典祀廳) 등의 기록도 함께 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안도 의주의 경우는 신주 또한 기록하였다. 이러한 부속 건물들은 대부분 2~3칸인데, 1칸이거나 4칸인 경우도 간혹 보인다.

2-6. 기타: 향교 부근에 신실이 위치하는 경우

<표 8>은 신실이 향교 근처에 위치하는 세 지방의 관련 문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함경도 경원의 경우 향교가 성내에 있다. 충청도 온양의 향교 또한 지도에서 볼 때 읍치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판실은 읍치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읍의 신실이 비록 향교 부근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역시 읍내에 신실이 있는 경우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원도 금화의 향교 또한 읍치와 멀지 않다. 다만 경원의 경우 신실이 여단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16위의 위판을 봉안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사직 위판은 따로 모셨을 가능성이 높다. 여귀의 위판이 15위이고, 이에 성황의 위판을 함께 봉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영평의 경우는 매우 특수한데, 사직의 신실이 사직단소(동1리)에 있지 않고 서쪽 1리에 있었으며 여단 신실을 겸하고 있다. 읍지 지도에서는 사직 신실이 사직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 9>

57) 『關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4~15卷), 奎章閣藏(奎12168), 1871; 『關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6~17卷), 奎章閣藏(奎12169), 1895  
 58) <각주 48>과 동일.  
 59) <각주 48>과 동일; 『肅川府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8卷), 奎章閣藏(奎17488), 1782(정조 6) 이후  
 60) <각주 48>과 동일; 『淸溪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9卷),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藏2-4316), 正祖間  
 61) 『關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4~15卷), 奎章閣藏(奎12168), 1871; 『龍崗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7卷), 奎章閣藏(奎12345), 1876  
 62) 『龍城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51卷), 奎章閣藏(經古 915.184-Y 58Y), 1791  
 63) 『關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4~15卷), 奎章閣藏(奎12168), 1871; 『義州義會堂』, 『龍灣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50卷), 奎章閣藏(奎1710), 1849(헌종 15) 重刊; 『龍灣志』, 『七郡圖經』(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55卷), 奎章閣藏(想白古915.18-C436), 1804 이후 편찬  
 64) 『慈山郡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53卷, 187쪽), 奎章閣藏(奎17490), 1745(영조 21) 이후  
 65) 『關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4~15卷, 178쪽), 奎章閣藏(奎12168), 1871; 『關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6~17卷), 奎章閣藏(奎12169), 1895

표 8. 향교 부근에 신실이 위치하는 경우

地方	出處	內容
江原金化	金華縣邑誌 等 <sup>66)</sup>	(公廡)神室: 1間, 在鄉校門前。奉安社稷、城隍、厲祭壇神位。壬子(1792)各建屋子, 移安於壇所。見各壇祠。鄉校在縣西2里。
忠淸溫陽	湖西邑誌(1871)	位板室: 在郡北1里。 * 『1872년 지방지도』 중 향교 동쪽에 이웃하고 있다. <그림 5> * 鄉校在郡西1里。
咸鏡慶源	關北邑誌 等 <sup>67)</sup>	(厲壇)位板16坐藏在文廟西牆外別堂。 * 文廟在府東門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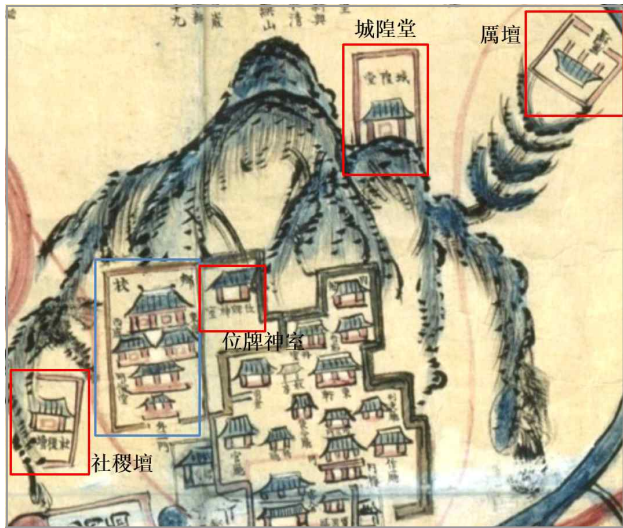


그림 5. 충청 온양, 『1872년 지방지도』

표 9. 경기도 영평의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사직

『京畿志』	『京畿志』(邑誌, 10卷)	『京畿道邑誌, 3卷, 139쪽
(社稷)神室, 在郡西1里, 瓦家2間。 (厲祭神室並)		

### 3. 신실과 세 단유 관계의 변화·발전

조선시대를 통틀어 정부는 지방 제사를 정치(整治)<sup>68)</sup>

66) 『關東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9卷), 奎章閣藏(奎12172), 1871; 『金化縣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江原道邑誌, 3卷, 126쪽), 奎章閣藏(奎17524), 1823경

67) 『北關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3卷), 1872; 『關北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4卷, 149쪽), 韓國精神文化研究院藏(藏2-4215), 1868

하고 엄격히 관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중앙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건축적으로 명확하게 반영된 부분이 신실이다. 몇 가지 문헌 내용으로 조선시대 초기의 열악한 신위 봉안 상황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상주 읍지의 기록에 따르면, ‘열읍(列邑)의 사직에는 위판을 모시는 사우가 없어 관사의 정결하지 못한 곳에 봉안하였다가 제사가 다가오면 단소(壇所)로 옮겼다’고 한다.<sup>69)</sup> 『여지도서』의 충청도 청풍의 내용에는 송시열의 「사직단기」를 싣고 있는데, ‘전에는 어디에 (신위를) 봉안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신위 봉안이 얼마나 엄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70)</sup> 경기 부평의 읍지에는 ‘이설하기 전의 신실이 더러운 곳에 있었다’고 전한다.<sup>71)</sup>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영조실록』 6년 12월 20일 기사에는 박문수(朴文秀)가 영남 지방에 있을 때 들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직 위판과 산천, 성황, 여귀 등의 신관이 1칸의 건물 안 먼지 속에 섞여 있었다<sup>72)</sup>고 한다. 그다음 해인 영조 7년 5월 8일 기사에서는 영조가 ‘지방의 사직 위판이 주머니에 넣어져 걸려 있는 예가 허다하니 어찌 더럽지 않겠는가?’<sup>73)</sup>라고 하였다고 하니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18세기까지도 여러 지방에서 단유의 신위는 관사나 읍지의 어느 한곳에 함께 봉안하고 있었는데 매우 불경한 상태였다. 제사 때에는 각 신위를 제소로 옮겨가서 제사를 지냈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조선초기 지방의 산천 제사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었다. 『세종실록』 12년 8월 6일 기록을 보면, 당시 산천 제사의 위패를 사원(寺院) 등에 보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단소에 신실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종실록』 19년 3월 13일 기록을 보면 신실이 아직도 조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국행 제사 이외의 제사 위패는 관사에 봉안하였다가 제사 때 가져가서 제사하도록 하고, 국행 제사 또한 풍년을 기다려 신실 등의 부속 건물을 조성하도

68) 整治는 실록을 비롯한 고문헌에 등장하는 단어로 정돈을 비롯하여 수리, 관리와 같은 유지 보수 및 규정에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것과 같은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말이다. 본 글에서는 문헌의 표현인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69) 『商山邑誌』(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19卷); “列邑社稷无祠宇以藏位版。常時奉案於官舍不潔之地。臨祭用架子昇至壇所。”

70) 『輿地圖書』; “未知未前安於何所, 其不嚴奉則可知矣。”

71) 『京畿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10卷), 奎章閣藏(奎12177), 1871; “神室旧在邑里卑汚之地。”

72) 『英祖實錄』, 6年 12月 20日; “混置於一間屋塵埃之中。”

73) 『英祖實錄』, 7年 5月 8日; “外邑社壇位版, 或有盛之囊中而懸之者云, 豈不褻乎。”

록 일단은 유보하였던 것이다. 사직, 여단, 성황 위패 또한 이러한 관행에 따라 관사에 함께 보관되었다가 제사 때 제소로 옮겨서 단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낸 것이다.

물론 모든 지방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회소하기는 하나 경상도 상주에서는 16세기 말 이미 사우를 건설하였고, 함안에서는 1586년 담장 내 단의 서남쪽에 1칸 건물을 지었다. 즉 임란 이전에 이미 사직 신실을 제소에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직 제사는 지방 제사에서도 가장 중요시된 제사였고, 그 위패는 다른 위패보다 더 중시하였기 때문에 사직 신실은 일찍부터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후 사직 신실 구성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중기 이후에 등장한다. 경상도 동래와 전라도 무주·강진·광주, 그리고 평안도 의주와 함경도 안변·길주 및 충청 청풍 등에서 사직 신실이 조성된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지도서』의 청풍부에 실린 송시열의 「사직단기」에 따르면, 1669년 충청도의 각 읍 사직을 전체적으로 정돈하였다고 한다. 이때 정돈하지 못했던 청풍은 1684년에 사직을 이설하고 신실을 세웠던 것이다. 청풍의 예를 볼 때, 1669년 충청도 각 읍 사직의 정돈 내용 역시 사직단의 이설과 신실 건축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 시기 경상도에서는 성황사의 이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17세기에 어느 정도 단유건축에 대한 정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영조 6년의 기록을 볼 때, 이때 까지도 신실의 조성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읍내에 신실 조성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당시까지도 신위 봉안이 불경스러웠던 데 대해, 박문수는 ‘새 건물을 짓기도 하고 옛 건물을 수리하기도 하여 사직 위판을 따로 봉안하도록 하고 다른 위판을 한 실에 모시더라도 반드시 각각 그 위(位)를 설치하여 봉안’<sup>74)</sup>하기를 건의하였다. 2장 두 번째 유형의 읍치 신실은 이러한 박문수의 건의와 거의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읍내 신실의 조성 시기를 기록한 문헌 또한 많지 않다. 충청도 음성의 경우 1720년경에 신실 기능을 하는 사직사(社稷祠)를 객사 내에 세웠고, 1755년에 전라 익산에 사직사와 성황사를 객사 북쪽에 세웠으며, 1785년 경기 양성의 여단 신실을 객사에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읍치 신실은 『여지도서』에서 이미 여러 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읍치 신실은 영조 시기에 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 말기인 1780년부터 정조와 순조 시기는 각 단소의 수리 기록이 많이 보이며, 그 내용 대부분은 신실 등 부속 건물의 건립이다. 특히 1792년은 실록에서 지방 단유의 수리를 명한 내용과 맞물려 여러 읍에서 신실 등의 부속 건물 건립이 있었다.

문헌으로 볼 때는 순조 2년에 편찬된 『송도속지(松都續誌)』의 「분봉상시(分奉常寺)」 내용 중에 ‘각 읍은 정부의 명령으로 사직 신실을 단의 옆에 지었다’<sup>75)</sup>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이 외에도 충청 목천이나 함경도 단천의 읍치 내용에서 정조 혹은 순조 대에 신실에 봉안하였던 위판들을 각 단소로 옮겼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 충청도 부여나 음성, 천안의 조선 말 읍치에서 읍치 내의 신실을 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읍치 신실의 위판을 각 단소로 이봉한 시기는 정조 시기로 비교적 분명하다.

그리고 정조 시기는 성황과 여단이 합병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성황과 여단의 합병은 그 이후 조선 말까지 간간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자동적으로 두 신실도 하나로 합쳐졌다.

#### 4. 맺음말

단유건축은 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는 건물 유형으로, 제사의 행위가 일어나는 중심 건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속 공간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신실은 제사의 대상인 신위를 봉안해 두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단연 부속 건축 중에 중요한 지위를 지닌다.

조선시대 중앙 정부는 유교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한 방편으로 지방의 제사 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관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지방의 단유 제사건축은 구체적인 세세한 규정이 없어,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지방의 사정에 따라 수리와 정치(整治)를 겪었다.

단유건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신실은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부속 건축의 하나로, 다른 부속 건물에 비해 관련 문헌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신실을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지방 단유건축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조선시대 단유건축 신실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이 6가지 유형들 간에는 어느 정도 시기적인 전후 관계를 따져볼 수 있었는데, 세 단유

74) 『英祖實錄』, 6年 12月 20日; “或造新屋, 或修舊屋, 社稷位版, 奉安別處, 至於他神版, 雖處在一室中, 而必各設位而安之.”

75) 金文淳, 『松都續志』(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卷), 奎章閣藏(古4790-15), 1802; “各邑因朝令建社稷神室於壇旁.”

## 18 논문

의 신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단에 따로 갖추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덧붙여 조선후기에는 지방에 따라 성황과 여제단의 긴밀한 관계로 두 단을 같은 곳이나 근처에 두고, 두 제사의 신위를 함께 봉안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
2. 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1~55』, 한국인문과학원, 1991
3. 서울대학교 규장각, 『강원도읍지: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4. 서울대학교 규장각, 『경기도읍지: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2000
5. 서울대학교 규장각, 『충청도읍지: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6. 서울대학교 규장각, 『전라도읍지: 1~22』,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9
7. 한국학문헌연구소, 『읍지: 1~20』, 아세아문화사, 1982
8. 辛惠園, 「中國明清時期和韓國朝鮮時期的壇壝建築形制比較研究」, 清華大學 博士論文, 中國, 2014
9. 유훈조, 「조선시대 주현사직단의 시설 및 부속 건축물 설치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20호, 2012.12, 221~263쪽
10. 장지연, 「조선시대 주현 사직단 설치의 의미와 그 실제」, 한국문화, 56호, 2011, 3~46쪽
11. 김미영, 「지방 사직단에 대한 연구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20집, 2006.12, 5~44쪽
12. 최종석, 「조선 초기 성황사의 입지와 치소」, 동방학지, 131집, 2005, 37~88쪽
13. 최종석, 「여말선초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역사와 현실, 72호, 2009.6, 207~251쪽
14. 신혜원, 「조선시대 성황 제소의 혼란한 양상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44집, 2017, 125~150쪽

접수(2017. 6. 15)

수정(1차: 2017. 12. 15)

게재확정(2017. 12. 23)